한국청소년연구 제18호 1994 가을

도시화와 청소년 일탈

고 성 호*

Ⅰ. 서 론
Ⅱ. 청소년 일탈행동
Ⅲ. 도시사회 조직의 특징
Ⅳ. 도시생활과 청소년 일탈
Ⅴ. 청소년선도 대책에 대한 함의
Ⅵ. 결 론

Ⅰ. 서 론

청소년기라는 범주는 사회적으로 매우 모호한 성장단계이다. 단순한 농경사회의 경우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는 사회적으로 유의한 범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아동과 성인이라는 두개의 범주로만 분류되었다.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있어서 아동 또는 성인이라는 2분법적인 기준을 적용받았다. 아동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이르면, 성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의식 *rituals*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받았다. 그러나 도시산업사회의 전개로 인하여 보호받아야할 아동기 *childhood*와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독립된 성인기 *adulthood* 사이에서 방황하는 새로운 사회적 단계, 즉 청소년기가 '출현'하게 되었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도시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요하는 단계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상당부분이 바로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둑질, 강도, 살인 등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이해타산적 대인관계, 성도덕의 문란,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참여하는 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발생한 박 모군의 패륜행위는 청소년 일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청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살해는 원초적 규범에 대한 도전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잔학행위로써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강사

리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일탈의 문제는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청소년들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 정체감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청소년 일탈행위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으로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차적으로 사회구조적 변동이 청소년 선도대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가치관과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맥락은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동이란 지난 3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농촌농업사회가 도시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도시는 다양한 하위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도시 문화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지역으로 전파된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화는 어떤 기제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루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 주제이다.

II. 청소년 일탈행동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정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는 '위험하고 취약한' 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약 100년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애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젊은 연령층이 대량으로 학교에 진학하고 신체적으로는 성숙하여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이며 의존적인 연령층으로서 이들 특유의 문화를 발달시킴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단계로 그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소년기는 흔히 '십대'로 통칭되기도 하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하이틴 *high teen*' 또는 그냥 '틴에이지 *teenage*'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대초반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라는 범주가 연령적으로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단계를 고려할 때 그 범주는 더욱 애매모호해 질 수 있다.[1] 청소년기는 주로 '취학'상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연령을 중시하는 사회의 경우 상대보다 나이가 낮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애'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장가를 가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야." 또는 "장가를 가더라도 '애'가 없으면 '애'야."라는 속설에서 보듯이 나이는 '충분히' 들었어도 사회적 책임이 없으면 '애'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같이 독신자가 증가하고 혼인연령이 높으며, 결혼을 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마 걸' 이나 '마마 보이'가 증가하는 세태 속에서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기가 더욱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출현'이 최근의 현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연령적 또는 사회적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기라는 생애단계가 매우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탈행위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실상 청소년기를 정의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탈행위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해 일탈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이다. 일탈행동 이론을 처음으로

1) 청소년기라는 개념의 복합성은 조용환(1993)을 참조할 것.

체계화시킨 뒤르케임의 말을 빌면 '집단양심'에 반하여 제재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적 희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통계적 소수라는 개념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예를 들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도 사회 주류층의 입장에서는 일탈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성인에게 정상적인 행위가 청소년들에게는 부정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탈이라는 개념은 통계적이며, 규범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상적인 행위가 일탈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일탈행위가 정상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행위일 수 있으나, 지하철 내에서 그러면 일탈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똑같은 행위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일탈은 '청소년에 의한' 일탈일 수도 있고, '청소년에게 규정된' 일탈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행위의 주체만 청소년층으로 제한된 일탈을 의미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도둑질, 방화 등 대물범죄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는 일탈로서 청소년에 의하여 저질러지면 청소년 일탈이 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일탈의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다방에 가고, 당구를 치고, 또한 성행위를 한다고 하여도(적어도 부부간에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행위로 취급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탈행위로 여겨진다. 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는 인정되지만, 중·고생의 경우는 이성교제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대학생 역시 비생산 연령집단으로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용인되는 것은 특히 대학진학이라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 다시말해 이런 유형의 일탈은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청소년 고유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성숙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충적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물론 청소년층의 특수성(하위문화)도 병행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도시사회 조직의 특징

이 논문은 일탈행동을 사회변동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개의 주요 가설을 제안한다. 첫째는 일탈행동의 지역적 상이성이다. 구체적으로 일탈행동은 그 유형과 강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지역이 다르고, 도시도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하나의 가설이다. 둘째, 일탈행동의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있다. 사회변동이란 농촌-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일탈의 경우 도시사회의 특징인 하위문화의 발달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둘째 가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어 도시생활과 일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조사한 다음, 청소년 일탈행동에 촛점을 맞추면서 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도시화와 도시성장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역사상 보기 힘든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 5만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1960년 28 퍼센트에서 1970년의 41 퍼센트, 1980년의 57 퍼센트를 거쳐 1990년에는 74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60년 불과 7백만에 불과했던 도시인구가 1990년의 경우 3천 2백만명을 초과하였으니 실로 엄청난 변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도시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의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약 1천 1백만으로서 세계 10대 도시이며, 서울－인천을 포함하는 광역도시로서의 서울의 인구를 약 1천 5백만으로 어림잡아도 세계 5위권을 마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는 그 규모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구의 경우 100년－20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도시화와 도시의 성장이 한국에서는 불과 30 여년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국인의 사고방식, 행동유형은 과거 농촌－농경사회의 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며, 평면적 일탈이론으로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도시화는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그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집중의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혁신은 도시생활의 속성이다. 새로운 경제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도덕과 행동이 세속화된다. 도시화는 새로운 사회조직과 문화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이다.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정신적·물질적 생활상은 텔레비젼을 통해, 전화를 통해, 그리고 직접적인 대인접촉을 통해 오지로 전파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도시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과거 일차적 관계망 속에서 강력하게 통제되었던 삶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경제적 지위의 향상, 여가생활의 증진 등 도시가 제공해주는 기회와, 배금주의 문화, '군중 속의 고독', 향락문화 등 새로운 도전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2. 도시성(Urbanism)

도시산업사회의 발달이 양과 강도면에서 일탈행동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면, 도시는 어떤 기제를 통하여 일탈행동을 일으키는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유형은 무엇인가? 이런 행동은 왜 도시에서 발생하는가? 대도시생활은 청소년 일탈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시성 *urbanism*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1) 결정론

도시의 사회조직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학자는 이른바 시카고학파의 워스(Wirth)이다. 그는 도시사회학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논문중의 하나인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 *urbanism as a way of life*'(1938)에서 도시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유발하는 기제라고 주장하였다. 도시의 병리현상은 정서가 결여된 이해타산, 빈도는 높지만 피상적인 대인관계, 분절화, 고립화, 아노미 등 사회적·심리적 해체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인의 특성은 농촌인의 특성과 상치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워스의 결정론적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병리현상은 도시의 인구규모, 밀도, 그리고 이질성에 의하여 발생된다. 도시가 도시인의 사회관계, 즉 "생활 양식으로서의 도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규모의 영향이다. 상호작용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분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시거주자들은 지역적으로 격리된다.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친숙하게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시인들은 익명성과 단편적 역할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밀도는 수(數)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즉 분화와 전문화를 촉진시킨다. 공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도시의 각 지역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모자익 현상을 이루는 생태학적 전문화를 가져온다. 상이한 개성과 생활양식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 관점 *relativistic perspective*을 발달시키고, 상이한 가치와 행동에 대하여 관용 *tolerance*적이게 된다. 일탈행동은 1차적 통제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법과 경찰'을 포함하여, 수위, 자경단 등 공식적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교류로 신분의 경직성이 허물어지고, 사회적 신분이동이 활발하다. '사람됨' 혹은 인격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보다는 물질적 부의 축적 정도로 평가한다. 물질적 이익에 대한 추구는 정서를 초월하는 궁극적 목적이 된다. 따라서 도시생활은 병리화하게 되며, 무관심, 고립감, 피상적 대인관계, 익명성, 상대적 관점 등 도시의 병리현상은 도시의 생태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현상이며, 일탈행동은 이와 같은 도시의 해체과정의 일부이다.

2) 구성론

갠스(Gans 1962)는 도시성은 도시의 생태학적 요소(즉 인구규모, 밀도, 이질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라, 단지 도시 주민의 구성이 특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도시지역은 인구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 예를 들면, (1) 학생, 예술가, 작가, 음악가, 연예인 등 cosmopolites, (2) 직장과 여가시설에 가까이 하고자하는 독신자, 또는 신혼부부들, (3) 외부접촉은 제한되어 있으나 일차집단 관계를 유지하는 '도시촌락인,' (4) 도시의 극빈층, 그리고 (5) 이민자 등 밖으로의 이주가 불가한 집단들이 도시에서 발견된다. 도시민들은 필요에 따라 도시의 여러 지역(도심과 근교지역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는 특정한 생활양식이 발견될 따름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도시에는 특정의 생활양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도시는 반드시 병리적인 생활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구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행동양식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도시에도 다양한 생활양식이 존재함은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리보 Liebow의 『길모퉁이 사회』(1943), 갠스의 『도시촌락인』(1962)에 의하면 도시에는 퇴행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일차적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도시생활의 특징을 부인할 수는 없다. 먼저 도시인의 1차적 관계를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의 경우, 도시의 일부지역, 일부층의 문화 즉 하위문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유형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하위문화에서 나오는 특징을 도시인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노력은 지나친 단순화일 따름이다. 사실 밀그램(Milgram) 등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도시인은

근린주민의 이름을 농촌주민들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자발적 상부상조 정신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성에 대한 연구는 도시성 존재의 유무에 대한 논쟁보다는 도시는 어떤 기제를 통하여 도시성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본래의 문제의식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3) 하위문화론

워스로 대표되는 결정론적 주장과 갠스의 구성론은 얼핏 경쟁적이며 상충적인 주장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두개의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도시의 규모는 연속적으로 특유의 도시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다양한 하위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강화된다. 그리고 도시성은 단 하나의 병리적 유형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셔(Fischer, 1975; 1976)의 하위문화론은 일탈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피셔에 의하면, 도시는 인구의 규모와 인적구성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하위문화가 발생한다. 첫째, 대도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조적 분화가 가능하다. 도시 규모가 '임계량 *critical mass*'에 이르면, 소규모 농촌지역에서와는 달리 직업이 다양화해지고, 전문기관이 등장하며, 특수 이익집단이 생긴다. 신문사, 대학교, YMCA, 넨스클럽 등은 도시에서만 볼 수 있으며, 히피, 동성애자, 전문적 범죄자 등 일탈행위자도 동조자를 가질 수 있는 도시에서 주로 보인다. 둘째, 대도시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동자를 받아들인다. 이동자는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하위문화는 비교적 뚜렷한 성질, 이를테면 취향, 관심, 가치, 태도 등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간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하위문화가 강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생활은 사회관계망이 해체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집단간 응집력을 강화함으로써 하위문화가 다양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탈행위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반영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성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이론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최근 2-3세기간에 걸쳐 진행된 최대의 사회변동의 하나인 도시화가 어떤 생활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일탈행위 이론의 지역적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도시의 하위문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탈행동에 대한 기존의 도시사회학적 설명은 현 상황에 맞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도시화가 거의 포화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이라는 양분법적 접근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양식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에는 빈번한 문화교류와 대인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문화는 거의 동시에 전지역으로 파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도시-농촌이라는 2분법적 발상보다는 도시간의 차별성에 촛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도시생활과 청소년 일탈

도시는 도시 특유의 힘이 있으며, 도시산업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시사회 조직이 해체될 개연성이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이지만,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하위문화가 발생하며, 일탈행동은 도시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중복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생활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최근 허쉬와 고트프렛슨(Hirschi and Gottfredson 1983)이 지적했듯이 일탈/범죄 이론에 연령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로 일반적인 일탈행동을 청소년 층의 경우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일탈은 청소년이 처한 취약한 사회적 지위와 새로운 사회조직인 도시화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청소년은 역사적 발생 배경부터가 사회적 '주변인'이다. 서구의 경우 50년 내지 100년전에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최근에서야 인정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청소년기는 근대산업사회에서 '출현'한 새로운 단계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왜 도시산업사회에서 이 단계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먼저 농경사회가 도시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비숙련 노동이 설자리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상당한 훈련을 요하는 숙련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노동시장에 막바로 진입하기 전에 중등교육, 심지어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Hall 1981; Friday and Hage 1976). 반면 산업화에 의하여 노동력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아동의 노동력은 성인들에게 위협적이 되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아동'(즉 청소년)은 노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수 있다(Lenski et al. 1992).

아무튼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더이상 아동이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노동을 담당하는 사회의 주류 구성원도 아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청소년은 아직도 사회화되어야할 교육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일천한 청소년기는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청소년기를 '폭풍과 긴장의 시기'로 기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청소년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면서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정당하고 있는 도시산업사회의 사생아인 것이다.

도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좋은 피난처이며 안식처이다. 음주·흡연·마약 등 습관성 물질은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당구장·나이트클럽, 도색잡지, 폭력·섹스영화 등 성인용 오락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도둑질, 방화 등 대물범죄 등 성인범죄의 대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산업사회의 상행위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지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반면 도시의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하여 일반인, 근린은 물론 부모들도 자식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청소년 일탈중 하나의 특징은 죄의식의 결여이며, 도시의 다양한 하위문화는 이런 의식을 강화

시킨다. '이상한' 행위와 친숙하게 되면 더이상 이상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스트리킹을 해보라. 마을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신의 귀에까지도 되돌아온다. 도시에서는 일회용 고립으로 끝나버린다. 청소년 고유의 일탈행위, 이를테면 음주, 흡연, 당구장 출입 등은 나름대로 하나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구장에 갔다'거나 '담배를 피웠다'는 말은 동료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의 '티를 벗는' 행동이다. '오렌지족'과 '야타족'은 부모의 허락없이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으며, 성적(性的)으로 독립적임을 과시한다. 농촌사회에서는 부모나 연장자에 의하여 성인식이 치러지는 반면 도시에서는 또래집단간에 치뤄진다는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으며,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은 워스의 도시성 이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가족생활과 같이 동질적이며 잘 짜여진 소규모의 농촌과는 달리, 도시의 상대적 관점과 관용은 일탈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주고 있다. 일단 집을 나서면 부모형제로부터의 간섭에서 해방된다. 흡연, 음주, 당구 등 성인문화는 같은 또래의 '동호인'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마약, 노름, 성관계 등 자극적이며 충동적인 활동도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된다. 물론 도시는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제하기도 쉽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한 도시인들에게는 '남'의 일 정도로 치부되고, 관심이 있다해도 '큼어 부스럼내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법과 경찰'로 대표되는 공식적 통제는 매우 비효율적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도시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이며, 핵가족화는 곧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가족의 해체가 청소년 비행에 끼치는 영향은 소련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혼을 장려하여 전통적 부부관계의 해체를 고무한 결과, 근친상간, 축첩, 간통 등 성인 '범죄'는 하락하였지만 청소년의 패싸움, 주거침입, 음란 가요 등의 일탈/범죄 행위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도 매우 잔학하게 되었다. 도시는 이동이 매우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가 매우 약화되었다. 사회규범을 전달해주며,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를 책임질 '어른'이 없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사회화 기능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이전되었으며, '학생'은 이제 인성보다는 점수에 따라 평가되고 부모의 정으로부터 단절되며, 청소년들도 물질적 소유정도로 부모를 평가하려 든다. 따라서 가정은 '하숙집'화하고 부모들은 잔소리나 하는 '하숙집 아줌마'로 여겨질 따름이다.

도시거주자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끼리 하위지역에 집락되는 경향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빈부, 가족관계, 개인적 취향과 관계없이 혼합되어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시 사회지역의 동질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가, 공업지역, 슬럼가 등의 구분이 뚜렷하며, 계층, 가족관계, 생애단계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하위지역을 형성한다. 서구사회의 경우 도심주위에는 슬럼가가 발달하며, 술집, 당구장, 댄스홀, 홍등가가 집중된다. 미국 도시의 경우 범죄율은 도시 중심에서 높게 발견되고 있으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Burgess 1925). 그리고 슬럼, 밀집된 주거, 저소득층의 밀집과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폭력성 범죄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Abrahamson 1974). 한국의 경우 유흥업소가 반드시 도심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운상가의 포르노잡지, 비디오, 청량리 오팔팔, 미아리 텍사스촌 등은 대표적인 환락가이며, 동숭동 대학로는 누드연극으로 청소년 관객을 끌어들이고, 대학촌하면 술집과 당구장을 연상시키며, 압구정동 하면 이른바 '오렌지족'을 연상시킨다.

피셔가 지적했듯이 도시는 하위문화의 모자익이다. 거대한 인구규모에 의하여 취미와 기호, 성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도시의 하위문화가 청소년 일탈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코헨(Cohen)의 고전적 연구인 『비행 청소년』 등 그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구조에서 비슷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나 교제할 수 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 반응을 경험한다면 일탈 하위문화를 정교화한다"(Cohen 1966: 146). 청소년 비행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다.

V. 청소년 선도 대책에 대한 함의

청소년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 또한 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의 병리적 활동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잇점을 상기하고, 청소년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해결이 난망한 것도 아니다. 왜 유사한 환경속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 수많은 청소년들은 일탈행동을 거부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가?

먼저 도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하위문화의 집합이며, 긍정적인 하위문화에의 참여로 일탈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의 서울의 강남지역, 공단지역, 농촌지역의 청소년 행동유형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민무숙 1993), 농촌지역보다는 공단지역이, 공단지역보다는 서울의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이 다양하며, 모임참가 빈도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학생들이 불량모임에 가입하는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았다는 결과는, 하위문화의 잇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부정적인 단계로만 치부하여서도 안된다. 청소년 문화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이며,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는 '가능성과 약속의 기간'이며 '실험과 탐구'의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 개인적 취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3개의 차원 즉 국가적·정책적, 사회적, 그리고 가족 차원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간략히 보기로 하자. 이런 차원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첫째는 정책적 차원이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선도적으로 노력한다면 하위단위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청소년은 더이상 '외우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도시산업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격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주입식·암기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교육과 과외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도 이 사회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고,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정책이 그러듯이 청소년 선도 정책

도 '풀뿌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각종 사회단체, 지역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적극적인 하위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하위문화는 비교적 쉽게 창조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소년단, 소녀단, YMCA의 교육프로그램 등은 좋은 예이며, 최근의 전반적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농촌일손돕기, 선거자원봉사자, 환경감시자, 노인정·고아원·지체부자유자 수용원 등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중·고생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극빈국 노력봉사단 등은 정부부처와의 연계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적 차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일탈에 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결과는 타인 이를테면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문제점이 작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청소년 선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핵가족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거스를 수 없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는 대부분이 농촌-농경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따라서 당시에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범은 이제 도시산업사회에 걸맞지 않는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다른 사고, 다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잔소리'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은 농경사회에서는 사치품일지 몰라도 도시산업사회에서는 필수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Ⅳ. 결 론

이 논문은 청소년 일탈문제를 도시산업사회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약술하였으며, 도시화와 사회적 병리현상과의 일반적 관계를 도시사회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성 이론을 청소년 일탈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청소년 선도대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논하였다.

사회는 이제 더이상 농촌형 농경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애단계로서의 청소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완비되지 못했다. 도시의 다양한 문화는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며, 청소년들은 성인문화와 아동의 문화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정체의식을 시험하려고 시도한다. 아동문화는 '유치한' 문화로 취급되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성인문화는 호기심을 끈다. 그리고 사회적 의례를 치룸으로써 성인임을 자부하려고 한다. 현대도시는 일탈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만한 효율적인 기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급격한 도시화는 수세기간에 걸쳐 형성된 전통적 규범을 약화 또는 붕괴시키고 있지만, 이 규범에 대치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농촌형 농업사회의 틀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바뀌고 있지만, 사회적 규범은 정체되어 있다. 도시화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산업사회의 구조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민무숙. 1993.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2) : 31~47.

조용환. 1993. "청소년 연구의 문화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4(3) : 5~17.

Abrahamson, Mark. 1974. "The Social Dimensions of Urbanism." *Social Forces* 52 : 376~383.

Burgess, Ernest 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Pp. 47~62 in Robert E. Park and Ernest W. Burgess(eds.), *The C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Albert K. 1966.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Fischer, Claude S. 1975. "Toward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 1319~1341.

_____. 1976. *The Urban Experience*.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Friday, P.C. and J. Hage. 1976. "Youth Crim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riminology* 14 : 347~368.

Gans, Herbert J. 1962.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s of Life : A Reevaluation of Definitions." Pp. 625~648 in Arnold M. Rose(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Boston : Houghton Mifflin.

_____. 1962. *The Urban Villagers : Group and Class in the Life of Italian-Americans*. New York : Free Press.

Hall, G. Stanley. 1981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gion, and Education*. Norwood, PA : Telegraph Books.

Hirschi, T. and M.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n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 552~84.

Lenski, Gerhard E., Jean Lenski, and Patrick Nolan. 1991. *Human Societies : An Introduction to Macrosociology*. 6th ed. New York : McGraw-Hill.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 3~24.